

전국 각지 봉축행사 열기 벌써 후끈

전주·대구·부산 등지에서 점등법회·유등제·합창제 다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벌써부터 전국이 봉축행사가 이어지는 등 축제분위기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윤순)는 4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제3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봉축기념으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흥분사 주지 심산 스님,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윤순 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로지 부처님의 정법을 음성으로 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성 포교에 대한 사부대중의 관심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청도 유등제, 한국불교대 대관음사의 동자승 삭발식과 수계법회 등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하늘과 물에는 꽃비! 땅에는 신명·흥·환희!’를 슬로건으로 내건 청도 유등제는 4월 20-23일 정도군 화양읍 유등연지에서 열렸다. 청도유등제 봉행위원장 정광 스님은 “등불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축제로 화현된 범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1만여 개의 장엄 등이 유등연지 주변을 밝혔다. 또한 청도팔경 중 하

나인 유천여화를 집목한 ‘유호장대 여화놀이’가 밤하늘과 연못 위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 스님)도 4월 20일 동자승 삭발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 좋은 어린이집·유치원에 재학하는 어린이 10명이 주인공이 돼 우학 스님을 모시고 삭발식과 계를 받았다. 동자승들은 앞으로 한국불교대학의 대내외적 봉축행사에 참석해 행사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21일 전주중합운동장에서 봉축기원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각 종단의 대표 스님들을 비롯한 포교신도 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해 세계평화와 민족화합을 기원했다.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뚜렷한 주관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웃과 더불어 보편적인 상생의 삶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처님이다”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명의 존귀함을 사무치게 깨달아 모든 이웃들을 자기 생명처럼 존중하는 동체대비의 실천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4월 20일 참좋은 어린이집·유치원에 재학하는 1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삭발식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동자승들은 봉축기간 동안 한국불교대학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 전북지역은 이번 점등법회를 시작으로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한 달간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중)와 순천불자연합회(회장 최경태)는 4월 23일 순천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 상중 스님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으며, 점등식을 비롯한 제등행렬이 진행됐다.

순천불교사암연합회는 봉축 점등식에 이어 5월 6일 연꽃문화제와 유등축제를 개최

한다. 이밖에 양양 낙산사(회주 정념)는 4월 30일 양양사거리에서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을 주제로 점등식과 봉축행사를 봉행했다. 또 낙산사는 5월 2일 양양지역 초등학교를 돌며 어린이날 선물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4일 양양군 실내체육관에서는 1500여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손문철 대구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양행선 전남지사장

큰스님들이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

호남교구본사협의회 ‘2012 선교율 대법회’ 개최

한국불교의 선교율(禪敎律)을 대표하는 선지식이 빛고을 광주에서 강연을 연다.

호남지역교구본사협의회(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송광사, 선운사)는 5월 8-2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광주 KT정보센터에서 ‘2012빛고을 선교율 대법회’를 개최한다.

선교율이란 불교를 배우는 3가지의 대표적 방법인 선(禪)-불교수행 방법인 참선, 교(敎)-부처님 가르침, (律)-불교의 계율을 의미한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교-현응 스님(조계종 교무원장)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행복(5월 8일)’, ▷禪-해국 스님(선종사 금봉선원장)의 ‘수행과 행복하고 열린 삶(5월 15일)’, ▷律-지현 스님(송광사 율주)의 ‘계율에서 배우는 인생의 행복(5월 22일)’ 등 한국의 대표적 선지식들이 강사로 나선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는 현응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어떻게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를 펼친다.

해국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 수행법인 참선으로 통해 얻어지는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와 스님들의 수행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현 스님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위기는 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재가자들에게 현대적 의미의 계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연은 참석자와 강사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수행의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불교 공부의 기본인 3가지를 전문적으로 수행중인 큰스님들의 말씀을 통해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마음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맹목적인 기복신앙을 벗어나 부처님 법답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062)226-01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응 스님



해국 스님



지현 스님

“절에서 차 마셔요”

만남의 장소 ‘절다방’ 개원

나주지역 시민들을 위한 ‘절다방’이 생겼다. 나주 남평에 위치한 죽림사(주지 범음)는 4월 21일 경내에 ‘왕생루 준공과 아미타후불탱화 점안식’을 갖고 나주시민들이 언제나 편안히 차를 마실 수 있는 ‘절다방’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한 왕생루, 일명 ‘절다방’은 탁자와 다구 등을 비치해, 누구든지 쉽게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행사는 백양사 수좌 지선 스님, 범음 스님을 비롯해 사찰신도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공, 법요식, 문화공연으로 진행됐다.

범음 스님은 인사말에서 “절에는 사람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다. 절다방을 통해 앞으로 지역민들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관한 왕생루는 99㎡(약 30평)의 팔각지붕 2층 목조건물로, 1622년에 조성된 세존대불탱화를 축소해 봉안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소식

송림사 설법전 복원 낙성식 가져

조계종 칠곡 송림사(주지 혜성스님)에서는 4월 21일 설법전 낙성식 및 문화행사를 봉행했다. 이날 지역 기관 단체장과 사부대중 3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4년전 소실된 설법전을 복원해 낙성식을 가졌다.

주지 혜성 스님은 “설법적 복원으로 우리 불교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울 수 있었다. 지역관계 기관과 불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신라고찰 송림사에 부처님의 피로 다시 우뚝 솟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문화 행사로 송림사 합창단의 찬불가 발표회와 김달수 사진작가 개인전, 사물놀이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흥겨운 한마당 축제에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해운사 낙성식 및 타종식 개최

해운사(주지 원산스님)는 4월 25일 ‘해운종각 낙성식 및 범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지극한 진

리는 형상이 없어서 그 근원을 엿볼 수 없고, 큰 소리는 천지를 진동해 들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며 “그 진실한 뜻을 보게 하기위해 종각을 세우고 종을 치니 장병들이 ‘일승(一乘)의 원음(圓音)’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석암장학회, 2500만원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석암장학회(회장 정련)는 4월 21일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제75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동국대 불교학과 도이 스님을 비롯해 재학생 14명에게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석암장학회는 1971년 11월 28

일 해운사 스님이 근면한 소년소녀가장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됐다.

석암장학회는 현재까지 1141명에게 58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거창군쉼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거창군쉼터(관장 도영)는 4월 20일 장애인들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개선교육 “우리는 친구”를 실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우리는 친구”는 장애인해교육 및 장애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영 스님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통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간의 벽을 허무는 사업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선운사 보살계 수계 법회 봉행

선운사(주지 법만)가 4월 22일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 선운사 주지 범현 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을 비롯한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은 심종대계와 48계를 설하고 사부대중들의 실천을 다짐받았다. 행사에 참가한 사부대중들은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하며 계의 실천을

서원했다. 선운사 주지 범현 스님은 “오늘 받은 보살계를 계기로 모든 번뇌와 마진이 물러가고 생사해탈할 수 있는 참다운 불자로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순(46) 씨는 “10년 넘게 절에 다니면서도 처음 보살계를 수지하게 됐다”며 “불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 자세 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입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 과정	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특별강사 : KBS/MBC출연/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대 상 : 종교지도자/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매주 토요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철야기도 도량

봉 무심사 제5회 낙동강 방생 수륙대제 및 경로잔치(공연) 행

귀의 삼보하옵고
수륙대제란? 물이나 육지에 있는 고혼과 아귀에게 법식을 공양하는 법회로 모든 공덕중에 으뜸이 된다고 경에 말씀하였습니다. 부디 큰 행사에 많이 동참하시어
무주고혼 영가천도에 무량 공덕지으셔서 가장 편안하고 세세생생 안락하시길 기원합니다.

● 법 사 : 세원사 회주 천우 큰스님
● 일 시 : 2012년 5월 13일 10시30분 ● 장 소 : 무심사
● 집 전 : 무형문화재 영산회 전수자 스님 여러분
1부 수륙대제 / 2부 경로잔치 (오후 2시 이후)
* 영가 1위당 동참금 3,000원 (방생어류 무심사에서 준비함)

봉축법회 안내
일 시 : 2012년 5월 28일 10시 30분
장 소 : 무심사 극락보전
(연등 접수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 702058-51-003978 무심사
● 전화 055)532-0408, 053)616-8080

무심사 사부대중 합장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